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사회탐구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윤리와 사상 정답

1	③	2	③	3	②	4	⑤	5	⑤
6	①	7	③	8	②	9	①	10	④
11	①	12	⑤	13	②	14	④	15	⑤
16	④	17	②	18	⑤	19	③	20	④

해설

- [출제의도]** 사르트르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를 파악한다.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는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먼저 실존한 다음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세 계층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추구하였으며, 국가를 지배해야 할 덕과 개인을 지배해야 할 덕은 같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하이에크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같은 하이에크, 을은 마르크스이다. 하이에크는 자유 경쟁을 중시하면서도 경쟁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라고 보았다.
- [출제의도]** 용수와 세친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같은 중관 사상가인 용수, 을은 유식 사상가인 세친이다. 용수에 따르면 연기의 진리는 공(空)이고 중도(中道)이며, 모든 존재는 고정된 불변의 본성인 자성(自性)을 갖지 못한다. 세친에 따르면 우리가 인식하는 외부 대상은 오직 식[唯識]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 그와 같은 대상은 없다[無境].
-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같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왕수인은 하늘의 이치인 양지(良知)를 발휘하여 마음의 일[事]을 바로잡는 것을 강조하였다.
- [출제의도]** 듀이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는 도덕은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보았으며,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최고선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는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동식물도 신의 영원법에 참여한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그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된다고 보았다.

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면 중생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페뮈와 벌린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같은 페뮈, 을은 벌린이다. 페뮈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고,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다.
- [출제의도]**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같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불평등과 예측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 [출제의도]** 최제우와 박종빈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같은 동학 사상가인 최제우, 을은 원불교 사상가인 박종빈이다. 최제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보았다. 박종빈은 일원상의 진리를 우주의 근본 원리로 보았다.
-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에 따르면 신은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를 지니며 신의 의지는 도덕 법칙과 일치하므로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 [출제의도]** 이황, 이이,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같은 이황, 을은 이이, 병은 정약용이다. 이이는 기질 지성이 본연지성을 겸하듯이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를 본성으로 보았다.
- [출제의도]** 스피노자와 흄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같은 스피노자, 을은 흄이다. 흄에 따르면 이성만 감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 [출제의도]**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같은 에픽테토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픽테토스는 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렇게 일어나도록 결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 등은 우리의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묵자와 노자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묵자는 겸상애와 교상리를 바탕으로 평화 사상을 제시하였다. 노자는 무위의 다스림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같은 양적功利주의자인 벤담, 을은 질적功利주의자인 밀이다.
[오답풀이] ④ 밀은 쾌락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같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네 가지 선한 마음, 즉 사단(四端)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성정(性情)이 악하다고 보았으며, 예(禮)를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그림의 강연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개인은 국가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